

## Self-acceptance, Acceptance-of-Other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mong Nursing Students

Kyung Eui Bae<sup>†</sup>

Department of Nursing, Dongseo University, 47 Jurye-ro, Sasang-gu, Busan, Korea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elf-acceptance and acceptance-of-others in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from April 1st to June 10<sup>th</sup>, 2016. The study participants were 211 nursing students who were selected using a convenience sampling method. Significant predictors from a multiple regression model included self-acceptance ( $\beta=.382$ ,  $p<.001$ ), acceptance of others ( $\beta=.161$ ,  $p<.001$ ), age ( $\beta=-.181$ ,  $p=.019$ ), gender ( $\beta=.149$ ,  $p=.014$ ), and the number of team-building courses ( $\beta=.252$ ,  $p<.001$ ), which accounted for 32%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Considering the finding that self-acceptance and acceptance-of-others affect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mong nursing students, the programs to improve self-acceptance and acceptance-of-others as well as exposure to team building training should be designed in order to increase interpersonal relationship skills of nursing students in Korea.

**Key word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elf-acceptance, others-acceptance, nursing students

###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관계성 속에 함께 어울리는 존재로, 이미 내가 타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고 있는 세계 속에서 타인들의 관점에서 내가 가치 있는 존재로 남아 있을 때 내가 존재한다. 즉, 나는 타인과 타인은 나와 관계 속에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존재한다(Heidegger, 1927). 인간이 서로 간의 관계성 속에서 존재한다면, 관계성이란 인간이 자기 실존을 드러내고 확인하는 통로이며 매개체이고, 관계성은 인간 존재 구성 양식의 선행구조이며, 인

간이 경험하는 모든 순간은 서로간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다. 관계성은 인간 삶에 내재된 속성이며, 근원적이며 삶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인간 삶의 방식이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다(Lee, 2013). 따라서 인간은 타인과의 인간관계들 속에서 자신을 형성하고, 타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자신이 타인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를 인지하는 과정 중에 자신을 구성해 나간다고 볼 수 있다.

에릭슨의 사회적 발달이론에 따르면 대학생의 시기는 성인 초기(20대-40대 초반)의 시작 지점으로 발달과업이 친밀한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며 성년기 초기인

<sup>†</sup> Corresponding author: Kyung Eui Bae, Tel. +82-51-320-2632, Fax. +82-51-320-2721, e-mail. betty3903@hanmail.net

20대 초반인 대학시절에 원만한 대인관계를 통한 친밀감을 획득하지 못하면 고립감을 가지게 되거나 자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자기몰두를 경험하게 된다(William, 2011). 따라서 이 시기에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한 개인의 친밀감 형성은 매우 중요하며 이는 곧 성인기에 활동적이며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다. 대학시절 원만한 대인관계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기술적 발달로 인한 개인 통신망과 기기의 보급은 상대방과의 교류 없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활동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개인주의화와 고립감을 겪게 되는 추세가 점점 확장되고 있다(Kim, *et. al.*, 2006).

의료팀의 일원으로 대상자의 건강문제해결을 주목적으로 하는 간호사는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 있고, 이는 대상자와의 뿐만 아니라, 동료 간호사, 의사, 기타부서 종사자, 대상자의 가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인간관계 속에서 조정자 역할도 요구되는 직종으로(Lim & Yi, 2014), 미래의 간호사로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원만한 대인관계능력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능력이며, 대학생활의 적응뿐 아니라 미래 직종에 대한 준비에 반드시 필요한 과업이다(Jeong & Lee, 2012). 그러나 타과에 비해 전공과정이 일찍 시작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경쟁적인 교우관계가 형성되면서 이 시기에 달성해야 할 대인관계의 친밀감 발달이 방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 향상과 관련된 다각적 측면의 영향요인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개인이 심리적으로 성숙하기 위해 자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자기수용이다(Song, 1989). 또한 자기수용성은 자신의 기본적인 역량에 대한 객관성, 즉 객관적인 평가나 판단을 유지하면서 자기 자신의 감정, 동기, 사회적 및 개인적인 경험들을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이다(Rogers, 1951). 자기수용도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능력 내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할 수 있다(Lee, 1979). 이를 통해 신뢰감 높은 인간관계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만족스럽게 받아들

이고 인정하며,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 모두를 조건 없이 수용하여 자신을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인정하는 자기개념의 내용적 요소이다(Maccines, 2006). 자신이 유능하게 행동하는가에 상관없이 그리고 타인이 자신을 인정하고 존중하는지와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Ellis, 1996). 따라서 자기수용성은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얼마나 받아들이고, 인정하느냐를 나타내며 자신을 얼마나 있는 그대로 받아 들이느냐는 신뢰로운 인간관계를 촉진 시킬 수 있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간관계를 방해하게 될 것이다.

타인수용성은 타인을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는 것으로서, 자기수용성이 높을수록 높으며, 타인에게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이 높을수록 타인수용성이 높으며, 실제로는 타인수용성이 높을수록 타인들로부터 점점 수용되어지는 경향이 있다(Fey, 1955). 타인수용성은 개인의 성격 특성과 자신의 능력 발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타인 수용성이 높은 사람은 사물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행동하며 관심 있는 타인의 행동에 정신을 집중시킴으로써 타인의 행동에 대한 의미를 올바르게 해석하게 된다. 또한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한 대응반응은 개인 자신의 태도를 분명히 전달할 수 있고 이러한 인간관계를 통해 형성된 자신만의 신념을 통해 자아를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타인수용성이 낮을 경우는 인간관계에 손상을 가져와 스트레스, 생활의 불안정, 그리고 비능률을 경험하게 된다(Coms & Snygg, 1959). 타인수용성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 상황 및 느낌을 이해하여 수용하는 능력으로 타인의 관점을 취할 수 있는 지각조망과 타인의 생각, 지식, 견해 등을 추론 평가하는 인지조망, 타인의 감정 상태를 평가하는 정서적 조망이다(Lee, 2006). 따라서 타인수용도가 높은 사람은 타인과 원만하고 충분한 인간관계 경험을 통해 내적, 외적으로 성숙되고, 지능이 향상되고, 외부에 대한 통찰력이 향상되어 타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게 되고, 타인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다양한 상황에 대해 객관적 평가력이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인관계를 다룬 연구들은 대인관계 향상프로그램 개발(Kwak & Kim, 2015)이나 교육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대인관계역량의 향상도모(Koo, 2011), 대인관계능력과 관련된 외부 다른 요인들을 찾는 것을 목적(Ko & Kim, 2014; Chung, 2014; Kim, 2012)으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많은 대인관계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나, 대인관계 프로그램은 주로 의사소통기술 향상을 통해 이루어져 왔으며, 고정된 관점으로는 대인관계의 곤란을 의사소통의 곤란으로 보고, 대화기법의 개선이 대인관계의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가정해 왔다. 그러나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법은 바람직한 대인관계 형성과 유지에 필요조건은 되지만, 충분조건으로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의사소통을 구성하는 요소로 송신자나 수용자가 빠질 수 없고, 이 요소를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서는 대인관계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대인관계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전달자나 수용자인 인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Im, 2006). 대인관계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사에게 매우 중요한 필수적 소양이며, 많은 교육적 중재들이 교육과정을 통해 간호학생들에게 교육되고 있는 만큼 중요한 역량이며, 졸업 후 간호사가 되어서도 가장 어려워하는 주제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역량의 내적 구성요인들에 속하는 자기수용성과 타인수용성에 대한 대인관계와의 관계성을 파악해 보고, 이를 통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향상을 위한 좀 더 효과적인 교육적 접근법을 모색을 위한 교육적 중재 방안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인관계, 자기수용성 및 타인수용성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나아가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타인 수용성, 자기 수용성 정도를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자기수용성 및 타인수용성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자기수용성 및 타인수용성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탐색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P시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의 간호학과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2개 대학에서 편의추출 하였다. 표본크기 산출을 위하여 G-power 3.1.3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상자 수는 회귀분석에 필요한 예측변인 9개, 유의수준( $\alpha$ ) .05, 검정력( $1-\beta$ ) .95, effect size는 중간 크기인 .15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최소 172명이 산출되었고, 탈락률을 고려하여 22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은 해당기관의 책임자에게 설문조사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2016년 4월 1일부터 2016년 6월 10일까지 이루어졌다. 연구자가 해당기관의 간호학과 강의실을 방문하여 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작성방법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경우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총 22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215부가 회수되었고 이 중 응답 내용이 불성실한 4부를 제외한 211부(95.9%)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 3. 연구도구

- 1) 대인관계(Relationship Change Scale)

대인관계 측정을 위해 Schlem, Guerney and Stover의 Interpersonal Relationship Change Scale

(Guerney, 1977)을 Moon(1980)이 변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만족도(4), 의사소통(5), 신뢰성(3), 친근성(3), 개방성(4), 이해성(4), 민감성(2) 등 7가지 하위영역의 총 25개 문항으로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대인관계를 의미한다. 전체점수는 최저 25점에서 최고 125점으로 변안 당시 도구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는 .7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는 .875였다.

## 2) 자기 수용성

Phillips(1951)의 자기수용성(Self Acceptance Scale) 검사를 Son(1987)이 변안한 것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일반적인 자기수용성에 대한 문항으로 최저 25점부터 최고 125점으로 득점 분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수용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자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4이었으며(Robinson, et. al., 1991),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80이었다(〈Table 2〉).

## 3) 타인 수용성

Fey(1955)의 타인수용성(Others-Acceptance of Scale) 검사를 Son(1987)이 변안한 것으로, 이 척도는 5점 평정 척도,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언제나 그런 편이다'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긍정문항은 역산하여 계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타인 수용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타인 수용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점수 분포는 최하 20점에서 최고 100점까지로 나타난다. Fey(1955)가 개발당시 밝힌 도구의 신뢰도계수 Cronbach alpha는 .89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80이었다.

## 4.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연구 대상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설문에 참여하도록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

의 목적, 연구 방법, 절차 및 연구의 목적이외에 수집된 자료는 사용되지 않음을 설명하고, 설문에 대한 응답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에 대한 내용을 구두와 서면으로 설명하고 모든 과정은 헬싱키 선언에 입각하여 진행되었으며 참여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참여하겠다는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또한, 연구의 참여 혹은 중도 거부가 교수의 학생에 대한 평가로 인해 학점과 관련된 손해가 없음을 설명하고 이를 위하여 익명성과 비밀 보장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자료의 수집은 해당기관 소속이 아닌 연구자가 설문조사를 하였다.

## 5. 자료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검정하였으며 사후 검정은 Scheffé test를 사용하였다.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multiple regression)로 분석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여학생이 91.5%로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평균 연령은 20.55세(±1.45)이며, 전공과목 팀활동 경험이 아직 많지 않은 1학년을 제외하였고, 2학년이 91명(43.1%)으로 가장 높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종교는 52.0%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번 학기 팀활동 참여수의 평균 횟수는 3.01(±.93)이며, 팀활동에 대한 선호도는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1점부터 "매우 좋아한다" 5점으로 측정된 결과 평균 2.29(±.82)로 응답하였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11)

Characteristics	Category	n(%)	M±SD
Gender	Male	18(8.5)	
	Female	193(91.5)	
Age	19	57(27.0)	20.55±1.45
	20	55(26.1)	
	21	61(28.9)	
	>22	38(18.0)	
School year	Second	91(43.1)	
	Third	59(28.0)	
	Fourth	61(28.9)	
Religion	Yes	106(50.2)	
	No	105(49.8)	
Number of team building course in this semester	1	33(15.6)	3.01±.93
	2	99(46.9)	
	3	63(29.9)	
	4	16(7.6)	
Preference of team building course	I don't like it very much	33(15.6)	2.29±.82
	I don't like it	99(46.9)	
	Moderate	63(29.9)	
	I like it	16(7.6)	

Table 2. Mean scores for relationship, self-acceptance and others-acceptance

(N=211)

Variables	Sum of items				Item		
	Min	Max	M±SD	Total items	Min	Max	M±SD
Relationship	57	113	89.18±9.95	25	2.28	4.52	3.57±0.40
Self-Acceptance	38	106	74.71±11.75	25	1.52	4.24	2.99±0.47
Others-Acceptance	42	80	62.22±6.95	20	2.10	4.00	3.11±0.35

## 2. 대인관계, 자기수용성, 타인수용성 정도

대상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자신의 대인관계는 125점 총점에 평균 점수는 89.18(±9.95)점이었으며 자기수용성은 125점 총점에 평균이 74.71(±11.75)이었으며, 타인수용성은 100점 만점에 평균이 62.22(6.95)로 나타났다(Table 2).

##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는 성별( $t=3.184$ ,  $p=.005$ ), 연령( $t=2.786$ ,  $p=.042$ )과 팀활동 과목수( $F=5.105$ ,  $p=.002$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 결과 1개 과목에 팀활동이 있는 집단보다 4개 과목에 팀활동이 있는 집단이 대인관계 점수가 높았다(<Table 3>).

4. 대인관계, 자기 수용성, 타인 수용성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대인관계, 자기수용성, 타인수용성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대인관계는 자기수용성

( $r=.425$ ,  $p<.001$ ), 타인수용성( $r=.364$ ,  $p<.001$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자기수용성은 타인 수용성( $r=.476$ ,  $p<.001$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 5.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변인 확인을 위해 독립변수인 자기 수용성, 타인 수용성, 일반적 특성 중 대인관계에 유의하게 나타난 한 성별, 연령, 팀활동 과목수를 가변수(dummy variable) 처리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성별에서 남성은 1로 여성은 0으로 연령은 19세는 1, 나머지는 0으로 팀활동 과목수는 1개는 1, 나머지는 0으로 처리하였다. 먼저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공선성, 잔차, 특이값을 진단하였다. 독립변수들 간 다중 공선성 문제를 확인한 결과 상관관계는 .149 ~ .425로 .80 이상인 설명변수는 없어 예측변수들이 독립적임이 확인되었으며, Durbin Watson 검정을 통

Table 3. Differences of relationships according to participants' general characteristics

(N=211)

Characteristics	Category	Relationships			
		M±SD	t/F	p	Scheff
Gender	Male	82,56±9,17	3,184	.005	
	Female	89,80±8,81			
Age	19	91,93±8,77	2,786	.042	
	20	87,73±10,44			
	21	89,52±8,58			
	>22	86,60±12,04			
School year	Second	89,52±9,81	.395	.674	
	Third	88,20±10,24			
	Fourth	89,62±9,96			
Religion	Yes	89,75±11,26	.829	.408	
	No	88,60±8,43			
Number of team building course in this semester	1 <sup>a</sup>	83,40±5,99	5,105	.002	a<d
	2 <sup>b</sup>	89,19±8,88			
	3 <sup>c</sup>	87,95±10,97			
	4 <sup>d</sup>	92,09±9,17			
Preference of team building course	I don't like it very much	87,36±9,50	2,544	.057	
	I don't like it <sup>b</sup>	88,07±9,70			
	Moderate <sup>c</sup>	90,65±10,57			
	I like it <sup>d</sup>	94,00±8,16			

Table 4. Correlation of relationship, self-acceptance, others-acceptance, and others

Variables	Relationships	Self-Acceptance	Others-Acceptance
Relationships	1	.425(<.001)*	.364(<.001)*
Self-Acceptance		1	.476(<.001)*
Others-Acceptance			1

Table 5. Predictors of relationships

Predictors	Relationships					
	B	β	t	p	tolerance	VIF
Self-Acceptance	.323	.382	5,827	.001***	.754	1,326
Others-Acceptance	.185	.161	2,471	.001***	.759	1,318
Age†	-.067	-.181	-2,778	.019**	.765	1,307
Gender†	.212	.149	2,368	.014**	.815	1,228
Number of team building course†	.106	.252	4,159	.001***	.883	1,133
R	0,580					
F(P)	20,74***(p<.001)					
R <sup>2</sup>	0,336					
Adjusted R <sup>2</sup>	0,320					

†Dummy Variables

해 잔차분석 결과 1.724로 2.016~1.525 범위에 있어 오차항들의 자기상관의 문제는 없었다. 또한 공차 한계 (tolerance)가 .754에서 .883로 0.1 이상이었고, 분산 확대 인자(VIF)가 1.318로 10 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 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적합성 검증을 위해 표준화된 잔차의 정규성 검정 결과, Kolmogorov-Smirnov(p=.200), Shapiro-Wilk(p=.336) 검정 통계량 모두 유의수준이 .05보다 크므로 정규성을

만족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회귀분석 모형은 유의하였다(F=20.742, p<.001).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기 수용성(β=.382, p<.001), 타인 수용성(β=.161, p=.012), 연령(β=-.181, p=.019), 성별(β=.149, p=.014) 팀활동 과목수(β=.252,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측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을 포함한 모델의 설명력은 32.0%로 나타났다(Table 5)).

#### IV.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역량의 증진에 필요한 접근법을 찾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자기수용성과 타인수용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대인관계역량에 영향 미치는 요인으로 자기수용성과 타인수용성, 연령, 성별, 팀활동 과목수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는 평균 89.18±9.95점으로, 동일한 도구로 3,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Sok, *et. al.*(2006)의 연구결과에서 89.65, 3학년을 대상으로 한 Koo(2011)의 연구에서의 90.85와 비슷했고, 1학년을 대상으로 한 Hyun & Park(2008)의 85.37점, Kim, *et. al.*(2015)의 80.20보다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Sok, *et. al.*(2006)의 연구에서 학년 및 연령이 올라갈수록 대인관계가 높아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선행연구에서 학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2-4학년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대상자들의 자기수용성은 74.71±11.75점(2.99/5점)으로 동일한 도구로 같은 대상을 측정하는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그러나 다른 도구를 사용한 Kim & Lee(2013)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4.07(7점 척도)로 간호대학생의 자기수용성이 일반 대학생에 비해 낮지 않은 수준인 정도와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Kim, *et. al.*(2012)의 결과인 3.71(5점 척도)에 비해 낮은 정도로만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반복연구를 통해 결과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타인수용성은 평균 62.22±6.95(3.11/5)점으로 Fey(1955)의 연구에서 의대 3학년 58명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인 75.5±8.4점보다 낮았으나, Durm & Glaze(2001)의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결과의 64.8±8.8과는 비슷하였다. 본 연구의 타인수용성 측정 도구와는 다르지만, Pai(2001)의 연구결과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타인긍정성 21.5±2.79

(0-30점)와 타인부정성 8.67±4.0(0-30점)으로 비교적 바람직한 수준을 보여주나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고 타인이해를 위해 좀 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동일하였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가 사용된 타인수용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타인수용성이 조금 낮은 수준인 정도만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앞으로 반복연구를 통해 결과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는 성별, 연령, 팀활동 과목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대인관계 점수가 높았고, 나이가 많을수록 낮았으며, 팀활동 과목수가 많을수록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대인관계 점수가 높았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가 없어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하며, 연령이 높은 집단이 대인관계 점수가 낮았는데, 간호대학생을 대상 연령에 따른 대인관계를 본 최근연구가 드물어 직접비교가 어려웠다. Sok, *et. al.*(2006)의 연구에서 학년 및 연령이 올라갈수록 대인관계가 높아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와는 상이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자가 대인관계점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1학년을 제외한 2-4학년으로 일지역 2개교에서 편의 추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최근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령과 학년에 따른 대인관계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팀활동 과목수가 많은 경우 대인관계 점수가 높게 나왔는데, Jeon(2014)의 교육대학생을 대상으로 소집단 프로젝트 학습에서 성공적인 학습경험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능력을 인간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리더십 등이라는 결과와 집단에 기반한 프로젝트 학습은 학습자들의 협력적인 활동을 통해 학습능력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능력, 협동학습능력 등을 키울 수 있다고 한 Park & Choi(2007)의 연구결과와 같았다. 즉, 대학생의 팀활동 경험은 대인관계능력과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상자의 대인관계, 자기수용성, 타인수용성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대인관계는 자기수용성, 타인수용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대상을 같은 측정도구로 연구한 결과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이러한 결과는 자기수용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낮은 학생들보다 수행에 대한 타인의 부정적인 피드백에 덜 반응하고, 평가에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Chamberlain & Haaga, 2001)으로 보아, 대인관계와 자기수용성간의 관련성을 있음을 뒷받침 해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Durm & Glaze (2001)의 연구결과에서 자기수용성과 타인수용성간의 의미 있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자기수용성이 높을수록 타인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간호대학생들의 자기수용성과 타인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중재적 교육 방안이 대인관계 향상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설명력을 검증한 결과,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수용성, 타인수용성, 팀활동 과목수, 성별, 연령이었고, 설명력은 32.0%였다. 이들 요인 중 설명력이 가장 높은 요인은 자기수용성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들의 경우에도 자의식이 인간관계에 중요한 관련요소로 규명한 Park & Choi(2009)의 연구, Chung(2014)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며, 인간이해 및 수용에 근거한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적용한 Lim & Park (2013), Kim, *et. al.* (2015)의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대인관계는 자기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최근 간호교육 내에서도 대인관계 증진을 위해 기존의 의사소통방법에 대한 기법이나 방법 등에 대한 교육내용보다 자기이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Lim & Park, 2013).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간호학생의 역량 증진을 위해 다양한 자기수용 및 이해를 중심으로 하는 자신 내면 탐구방법(Koo, 2011)과 타인수용성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소규모 토론, 역할극, 프로젝트 소그룹활동 등

의 팀 활동을 통한 접근법(Jeon, 2014)을 사용한 대인관계역량증가에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대인관계, 자기수용성, 타인수용성 간의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향상을 위해 자기수용성과 타인수용성을 증진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팀활동 수업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2개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의 표출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자기수용성과 타인수용성을 파악하고 대인관계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실시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 본 연구 대상자의 대인관계정도는 연령, 성별, 팀활동 수업의 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대인관계는 자기수용성, 타인수용성과 각각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회귀분석 결과 대인관계에 대한 영향 요인 변수로 자기수용성, 타인수용성, 연령, 성별, 팀활동 과목 수였으며 이들 변수의 대인관계에 대한 설명력은 32.0%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수용성과 타인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팀활동을 교과 및 비교과 활동에 포함시켜 개발 및 운영하고, 다양한 팀활동 경험을 통해 자기수용성과 타인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 방법 또한 개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프로그램 개발 시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함께 도입된다면 좀 더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 대상 및 지역을 확대하여 반복연구를 통해 이론적 틀을 확립하고, 관련 변수들을 좀 더 확인하는 연구를 시행하고, 자기수용성과 타인수용성 향상을 포함한 대인관계 향

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 References

- Chamberlain, J. M. and D. A. F. Haaga. 2001.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and Responses to Negative Feedback. *Journal of Rational-Emotive and Cognitive-Behavior Therapy*. 19: 177-189.
- Chung, Myung Sill. 2014. Relations on Self-esteem, Empath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for Reinforcing Competence in Communica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2): 332-340.
- Combs, C. H. and D. Snygg. 1959. *Individual Behavior: A Perceptual Approach to Behavior*.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 Durm, M. W. and P. E. Glaze. 2001. Relation of Self-acceptance and Acceptance of Others. *Psychological Reports*. 88: 410.
- Ellis, A. 1996. *Better, Deeper, and More Enduring Brief Therapy: The 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 Approach*. New York: Brunner/Mazel Inc.
- Fey, W. F. 1955. Acceptance by Others and Its Relation to Acceptance of Self and Other: A Reevaluation. *Journal of Abnormal and Psychology*. 50: 274-276.
- Guemey, B. G. Jr. 1977. *Relationship Enhancement Skill Training Programs for Therapy, Prevention, and Enrichment*. San Francisco: Jossey-Bass.
- Hyun, Mi Yeul and Eun Ok Park. 2008. The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Communication Curriculum.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4(1): 5-11.
- Heidegger, M. 1927. *Sein und Zeit*. Halle, Niemeyer. translation, Jen, Y. B. 2010. *Existence and Time*. Dongseomoonhasa. Seoul.
- Im, Sook Bin. 2006. Communication Education in Nursing: To Promote Self-awareness. *Medical Communication*. 1(1): 59-66.
- Jeon, Jong Hee. 2014. An Exploration of the Necessary Conditions of Collective Intelligence Based on the Project Learning Experiences of College Freshmen in a University of Educat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4(12): 665-689.
- Jeong, Hye Sun and Kee Lyong Lee. 2012. Factors Affecting Nursing Stud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4(5): 2635-2647.
- Kim, Hee Sook, Wan Ju Park, and Tae Hi Ha. 2006. The Influencing Factor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2(2): 229-237.
- Kim, Hyo Jeong. 2012. The Effects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Appearance Satisfaction, Body-Image, and Self-Esteem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8(1): 62-70.
- Kim, Yoo Ja, Hoan Soo Jeong, and Mee Sook Lee. 2012. A Study on the Effects of Role within and outside the Family on the Self-Acceptance and Others-Acceptance in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Health and Welfare for Elderly*. 4(2): 13-21.
- Kim, Ji Yun and Dong Gwi Lee. 2013.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acceptance and Self-concept Clar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and Subjective Well-being in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4(1): 63-82.
- Kim, Weon Gyeong and Hyang In Chung. 2015. Effects of Korean Enneagram Program on the Ego-identity,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Self-leadership of Nursing College Students.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1(4): 393-404.
- Ko, Hyun Rok and Jeong Hee Kim. 2014. The Relationships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Job Satisfaction of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3): 413-424.
- Koo, Hyun Young. 2011. Effects of the Enneagram Group Counseling Program on Self-esteem, Anxie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3): 446-455.
- Kwak, Hye Weon and Na Hyun Kim. 2015. Effects of an Interpersonal Relationship Harmony Program o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 Nursing Education*. 21(3): 330-339.
- Lee, Hyeong Deuk. 1979. *The Practice of Group Counseling*. Central Aptitude Publisher. Seoul.
- Lee, Seung Hwa. 2006. The Impact of Korean - Type Sensibility Training on Acceptance of Other Persons, Interpersonal Attitudes, and Counseling Effectiveness Factors. Ph.D. Dissertation. Wonkwang University.
- Lee, Youn Soo. 2013. As a Method of Moral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Ph.D. Dissertation. Youngnam University.
- Lim, Eun Ju and Yeo Jin Yi. 2014. Comparison of Operations Room Nurses and General Ward Nurses on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within the Medical Team.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20(3): 314-322.
- Lim, Seung Joo and Eun Young Park. 2013. Changes in Communication and Relationship Pattern for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after 'Satir Communication Educ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9(2): 151-162.
- Maccines, D. L. 2006. Self-esteem and Self-acceptance: An Examination into Their Relationship and Their Effect on Psychological Health. *Journal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3: 483-489.
- Moon, Seon Mo. 1980. A Study on the Effect of Human Relationship Training Group Counseling. *Journal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19: 196-204.
- Pai, Hang Ja. 2001. The Effect of Group Rational Emotive Therapy on the Life-Posi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10(3): 391-405.
- Park, Hye Ok and Won Sik Choi. 2007.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Project Method. *The Korean Journal of Technology Education*. 7(3): 190-209.
- Park, Jeong Weon and Myung Sook Choi. 2009. A Study on Self Consciousness,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18(3): 351-360.
- Phillips, E. L. 1951. Attitudes toward Self and Other: A Brief Questionnaire Report.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5: 78-82.
- Robinson, J. P., P. R. Shaver, and L. S. Wrightsman. 1991. *Measures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Attitudes*. San Diego: Academic Press.
- Rogers, C. R. 1951. My Philosophy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How It Grew.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12: 3-15.
- Sok, So Hune, Dong Su Shin, and Kwuy Bun Kim. 2006. A Study of Correlation betwee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5(4): 475-481.
- Son, In Hwan. 1987. The Effects of Small Group Study on Academic Achievements, Self Acceptance and Others Acceptance.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 Song, In Seop. 1989. *Human Psychology and Self-concept*. Yangseowon. Seoul.
- Straus, M. A. and B. W. Brown. 1978. *Family Measurement Techniques Abstracts of Published Instruments*. Th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1985-1975.
- William, C. 2011. *Theories of Development: Concepts and Applications*. New York: Prentice Hall.
-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 곽혜원, 김나현. 2015. 간호대학생을 위한 대인관계조화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1(3): 330-339.
- 고현록, 김정희. 2014. 임상간호사의 감성기능과 대인관계 능력, 직무만족도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3): 413-424.
- 구현영. 2011. 에니어그램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자존감과 불안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7(3): 446-455.
- 김원경, 정향인. 2015. 한국형 에니어그램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자아정체감, 대인관계 및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효과. *간호행정학회지*. 21(4): 393-404.
- 김유자, 정환수, 이미숙. 2012. 노인의 가정 내 역할과 가정 밖 역할 수행이 타인수용과 자기수용에 미치는 영향. *노인의료복지연구*. 4(2): 13-21.
- 김지윤, 이동귀. 2013.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자기개념 명확

- 성의 매개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14(1): 63-82.
- 김효정. 2012. 간호대학생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만족도,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8(1): 62-70.
- 김희숙, 박완주, 하태희. 2006.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2(2): 229-237.
- 문선모. 1980. 인간관계훈련 집단상담 효과에 관한 연구. 경상대논문집(인문사회). 19: 196-204.
- 박정원, 최명숙. 2009. 간호대학생의 자의식,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성향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8(3): 351-360.
- 박혜옥, 최완식. 2007. 프로젝트 학습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학회지. 7(3): 190-209.
- 배형자. 2001. RET 집단훈련이 간호학생의 인생태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정신간호학회지. 10(3): 391-405.
- 석소현, 신동수, 김귀분. 2006.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와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5(4): 475-481.
- 손인환. 1987. 소집단 학습이 학업성취도와 자아수용 및 타인수용도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인섭. 1989. 인간심리와 자아개념. 양서원. 서울.
- 이승화. 2006. 한국형 감수성 훈련이 타인관점 수용·대인관계 태도 및 상담 효과요인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연수. 2013. 초등학교 도덕교육 방법으로서 대화적 서사. 영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형득. 1979. 집단상담의 실제. 중앙적성출판사. 서울.
- 임숙빈. 2006. 간호학의 커뮤니케이션 교육: 자기인식의 증진. 의료커뮤니케이션. 14(1): 5-11.
- 임승주, 박은영. 2013. '사티어 의사소통 교육'에 참여한 간호대학생들의 의사소통과 인간관계 변화 경험.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9(2): 151-162.
- 임은주, 이여진. 2014. 수술실간호사와 병동간호사의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능력 및 대인관계 능력 비교. 간호행정학회지. 20(3): 314-322.
- 전중희. 2014. 교육대학교 1학년 학생들의 프로젝트 학습 경험을 통한 집단지성 발휘 조건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12): 665-689.
- 정명실. 2014.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역량강화를 위한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 및 대인관계 간 상관관계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2): 332-340.
- 정혜선, 이기령. 2012.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자료분석학회. 14(5): 2635-2647.
- 현미열, 박은옥. 2008.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의 효과 측정.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4(1): 5-11.

Received: Dec. 22, 2016 / Revised: Jan. 19, 2017 / Accepted: Jan. 23, 2017

## 간호대학생의 자기수용성, 타인수용성과 대인관계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자기수용성, 타인수용성, 대인관계 능력의 수준과 관계를 파악하고, 나아가 대인관계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는 조사연구이다. 자료수집은 2016년 4월 1일부터 6월10일까지 2개 간호대학에서 편이추출 된 간호 대학생 211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수집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s), 다중회귀(multiple regression)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기 수용성( $\beta=.382, p<.001$ ), 타인 수용성( $\beta=.161, p<.001$ ), 연령( $\beta=-.181, p=.019$ ), 성별( $\beta=.149, p=.014$ ), 팀 활동 과목 수( $\beta=.252, p<.001$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측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을 포함한 모델의 대인관계에 대한 설명력은 32.0%였다. 자기수용성과 타인수용성이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역량의 증진을 위해서는 자기 수용성과 타인 수용성을 높이고, 팀 활동에 노출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대인관계, 자기수용성, 타인수용성, 간호대학생

---

Profiles **Kyung Eui Bae** : She received her B.A., M.A. and Ph.D. from Ewha Womens University, Korea in 2006. She is an assistant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Nursing, Dongseo University, Busan, in which she taught since 2014. She was an assistant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Nursing, Kaya University from 2008 to 2013. Her interesting subject in research is women's health nursing, nursing education, enneagram personality type analysis, transcultural nursing(betty3903@hanmail.net).